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23호 2014. 2. 7.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이철우/편집인:오경애/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전화:788-2371~6, 788-3081~6, FAX:788-3571

이사장 신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이사장 손재옥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계사년이 지나고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모두 가슴에 큰 뜻 혹은 작은 소망 하나쯤은 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올 한 해는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이맘때 속기협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인사말을 드린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속기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각오를 갖고 1년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새해가 되면 올해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의 사회 분위기에서 ‘속기’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도 올 한 해 이것이 상당히 큰 주제로 다가올 듯합니다.

작년 강촌에서 있었던 ‘속기학술세미나’는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잘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겐트에서 개최된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는 세계 속기인들과의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격년제로 열리는 ‘국제속기경기대회’에도 우수 회원들이 출전함으로써 우리 협회의 위상을 한껏 높여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선배님들의 글과 연구논문, 언론에 게재된 속기 관련 글들을 모은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 선집Ⅱ’도 발간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3주 동안 ‘속기무료강습’을 실시하였고, ‘속기와 기록문화 발전 - 속기사의 취업과 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예비속기사들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속기에 대한 홍보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협회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새로운 일을 발굴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항상 발전해 나가는 우리 속기협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속기인들이 있기에 이사장인 저로서는 그 기대가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기대를 발판 삼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1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손재옥

이사진 신년사

총무·재정
이사
이동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정이사 이동준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은 뛰어난 순발력과 강인한 체력, 힘차면서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말의 해의 힘차고 좋은 기운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협회에서는 속기학술세미나를 비롯하여 인터스테노, 속기경기대회, 속기무료강습 등 회원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또한 홍보·발간사업의 일환으로 속기계·자료선집을 발간하여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속기인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고 공유하며 고민해 보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후진 양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2014 청마의 해!

힘차게 달리는 청마처럼 많은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갑오년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5월에 개최되었던 제21회 속기학술세미나를 비롯하여 두 번째로 개최한 속기무료강습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신 가운데도 속기학술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신 김한우 교수님과 이해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지방의회 회원 여러분, 후배 양성에 힘쓰고 계신 속기학원 원장님을 비롯한 예비 회원이신 학원생 여러분, 또 항상 물심양면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 계신 한국스테노 이사님들, 특히 세미나 자리를 빛내 주신 대선배님들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속기협회의 든든한 기동 역할을 하고 계신 국회속기사 여러분께도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은 활달하고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성격을 지녔다는 청색 말처럼 회원 여러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보다 발전된 협회 모습을 기대하며, 또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회원
이사
관찬기



홍보이사

오 경 애

안녕하십니까? 홍보이사 오경애입니다.

홍보부의 사업은 「속기계」 발간입니다. 올해는 속기계가 나온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 동안 속기계 발간을 위해 애쓰신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홍보부원 모두는 선배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0호 속기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원을 힘차게 달려가는 푸른 말(靑馬)의 기운을 가득 받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 넉넉히 이루시는 2014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이사 최윤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일 년이 참 금방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역시 시작되었나 싶었는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2014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새 이사진과 부장단이 꾸려지고 새로운 비전과 각오로 활기차게 시동을 걸었다면 말띠 해를 맞아 올해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국제부는 벨기에 겐트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총회와 국제속기경기대회 참석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대회 결과는 약간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적극적인 총회 참석과 활동으로 인터스테노 내에서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에 대한 회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회원님들 개인과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제이사

최 윤 정

**자격심사
연구위원장**

이 순 영

1981년 당시 속기협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던 김기영 전 수석전문위원께서 기획하셨던 인터스테노 회원국 프로젝트. ‘속기계’를 영어로 번역해서 리프렛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속기협회에 보내는 등 훈신의 노력을 해서 1983년 인터스테노 가입. 이것이 국회 속기과 새내기 시절 이순영의 속기협회 첫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 인사드리네요.

올 한 해, 여러 회원님들이 벽인 줄 알았던 문을 꼭 찾기를 바라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손정아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백지(白紙)’입니다. 흔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백지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많은 만큼 실수도 잦겠지만 또 그만큼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특별한 건 아니지만 동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키워 보았고 현재는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일요일엔 ‘TV동물농장’을 챙겨 보고 친구들과 애견카페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3. 당신의 이상형은?

제 키가 작은 편이라 조금 욕심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키가 큰 편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작은 키이기 때문에 나중에 2세를 위해서라도...^^ 성격은 다정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취업에 대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뉴스에서 속기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후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속기’라는 것 자체를 전혀 몰랐는데 이처럼 뜻밖의 계기를 통해 접하게 되고 또 정말 속기사가 되고

10문 10답

나니 제가 속기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아마도... 청년실업자 중 한 명이 되어서 백수 생활을 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니 속기가 저에게는 참 구세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6. 국회 합격 소감은?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나지 않고 매일 국회로 출근하면서도 얼떨떨합니다. 고마운 분들이 참 많지만 누구보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처음 속기를 배워 보겠다고 했을 때도 적극 지지해 주시고 수험 기간 동안에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7.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곁에서 응원해 줬던 가족들과 친구들, 학원 원장님, 그리고 친척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하고 싶습니다.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매달 받는 월급을 1년 동안 모아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아니라 제 스스로 번 돈을 조금이나마 꾸준히 모아서 1년 후에 그 통장을 보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9. 선배님들께 한마디!

사회생활도 처음, 속기 업무도 처음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이 바쁘고 힘들 때마다 지루했던 지난 수험 기간을 생각하며, 매차 합격을 확인할 때의 그 떨림과 기쁨, 또 요즘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설레는 감정들을 되새기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이 서 진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절차탁마(切磋琢磨)’, 이 단어가 저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언제나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오래전부터 일본어 공부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3. 당신의 이상형은?

책임감 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이직을 생각하고 했을 때 뭐가 좋을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속기사라는 직업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문 10답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도서관 사서나 일본어 번역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6. 국회 합격 소감은?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7.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은?

부모님과 할머니께 선물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낯설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빨리 적응해서 당당히 제 몫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선배님들께 한마디!

선배님들, 제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혼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배우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금 이 마음 변치 않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이 소 영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오뎅이’,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오뎅이 정신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정신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운동하는 것 중에서 특히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고, 주로 친한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풁니다.

3. 당신의 이상형은?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 유머러스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을 검색하던 중 속기를 알게 되어 직장에서 틈틈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문 10답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공무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닐 것 같습니다.

6. 국회 합격 소감은?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지만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때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목표로 했던 한 숙제를 끝낸 느낌이 들어 후련함도 들었습니다.

7.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은?

수험기간 동안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 준 친구들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맛있는 것도 사 주고,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뭔가를 해 보고 싶은 것은 딱히 없고 직장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9. 선배님들께 한마디!

어렵게 이 자리에 오게 된 만큼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자세로 근무하며 최선을 다하는 국회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이사회 소식

■ 제219차 이사회는 2013년 3월 14일에 개최되어 ● 총무·재정이사회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집행부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총회에서 기 선임된 이사 13인 중 이사회에 일임된 부서장 5인, 즉 집행부 구성(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후 신임 감사 및 집행부 소개와 인사를 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속기경기대회 실시의 건을 상정하여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부터 제21회 속기경기대회 예선 관련, 참가자격, 경기방식 등 대회 개요에 대한 계획(안) 보고가 있었고 김란희 감사로부터 대표권 부여, 즉 인터스테노 출전자격 부여에 관한 질문에 인터스테노와의 연계 부분은 국제부와 이사장님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이순영 자격심사·연구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기대회 결선 인원 비율, 인터스테노 출전 인원 등에 관해 논의한 후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과 사업·회원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2013 속기학술세미나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간찬기 사업·회원이사로부터 2013속기학술세미나 일시, 장소, 소요예산 등 계획(안)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낮은 강사료로 인한 강사 초빙의 어려움, 재미와 흥미 위주보다 속기학술세미나 취지에 충실한 내용의 강의를 필요하다는 의견, 손석련 이사로부터 속기사 출신으로 현재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4항 기타 사항으로 학원과 사무소 등에 협회 차원의 회원증 발급, 자격증의 협회 이관 문제,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 업데이트, 속기사무소 연합회, 속기학원 간 교류 및 연합회 창설 등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제220차 이사회는 2014년 1월 24일에 개최되어 ● 총무·재정이사회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제47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으로부터 개최 일시·장소를 보고 받고, 관례적으로 1월에 개최되던 총회가 2월로 미뤄지게 된 점에 대해서 이사장의 양해말씀이 있었고 그 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김덕진 이사로부터 정관에는 총회 개최가 언제로 되어 있는지 질문이 있었고 이에 정관에는 1월 중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총무·재정이사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논의 후 제47회 정기총회를 2014년 2월 7일(금) 1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3년도 결산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재정이사로부터 2013년도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김란희 감사로부터 결산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란희 감사로부터 회비 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고 2013년도 결산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먼저 총무·재정이사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는 후 논의가 이루어졌고 협회 예산이 예결위 최종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상황과 문화체육관광부 측으로부터의 예산 약속을 받았다는 이사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이사로부터 협회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4항 단체회원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총무·재정이사로부터 단체회원 건 관련 개요 설명이 있는 후 논의가 이루어졌고 논의 과정에서 이순영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부터 본 건이 협회와 학원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총무·재정이사로부터 협회가 속기계 전체를 아우르는 긍정적인 효과, 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측면, 그리고 회원을 통제범위 내로 끌어들이는 등 제재수단도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4개 학원이 단체회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13년도 사업결과 보고

- ◆ 제21회 속기학술세미나가 강촌엘리시안(강원 춘천시 소재)에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139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김한우 한양대학교 교수, 이해득 KT연수원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벨기에 겐트에서 개최된 2013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2013년 7월 11일~22일)에 본 협회에서는 이경식, 유희연, 백순정, 정향인, 이태범, 손석련, 김점동, 김한우, 김병수, 김봉철, 윤여일, 이대선, 김종열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꾸준히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49호 속기계(2013년 도판) 발송과 소식지 제22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 선집Ⅱ」 사례집도 2013년 5월 중 발간하였습니다.
- ◆ 서울, 부산, 인천 등 18개 컴퓨터속기학원에서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총 3주 동안 속기무료강습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인원은 150명이었습니다.
- ◆ '속기와 기록문화 발전 - 속기사의 취업과 진로' 세미나가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각 현장에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속기사들의 발표가 있는 후 취업과 진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예비속기사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 ◆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제21회 전국속기경기대회를 4월 26일 국회의정관 전산교육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번 경기대회는 국제경기대회 리얼타임 방식으로 1분에 180자부터 320자까지 8분간 속기 후 수정시간 없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총 33명이 참가하였으며 수상자는 박광덕, 김봉철, 윤여일, 정현중, 이태범 씨가 선발되었습니다.

회원동정

◇ 승진

- 조영기(국회사무처)(2014.2.3)
의정기록과 서기관→과장
- 정순화(국회사무처)(2013.7.26)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서기관
- 김덕진·간찬기(국회사무처)(2014.2.3)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서기관
- 최윤정(국회사무처)(2013.5.11)
의정기록과 속기주사→속기사무관
- 장미경(국회사무처)(2013.7.26)
의정기록과 속기주사→속기사무관

◇ 입사

- 손정아·이서진·이소영(국회사무처)(2013.11.4)

◇ 파견복귀

- 정관(국회사무처)(2014.2.3)

◇ 퇴직

- 홍기표(국회사무처)(2013.3.4)
- 조신자(국회사무처)(2013.7.2)
- 권영찬(국회사무처)(2013.12.31)

◇ 공로연수

- 정명순(국회사무처)(2013.7.1)
- 김란희(국회사무처)(2014.2.3)

◇ 교육훈련 및 파견

- 이경식(국회사무처)
국방연구원(2014.01.25~2015.1.24)
- 정순화(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2013.07.26~2014.07.25)
- 이동준(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2014.02.03~2016.02.02)
- 손숙자(국회사무처)
국외대학원(2012.02.20~2014.08.19)



공지사항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합니다.

▲ 회비납부 : 302-0660-8195-21 농협 최혜연

연 락 처

총 무 부 02) 788-4817 김경재(총무부장)

02) 788-3084 최혜연(재정부장)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회 원 부 02)788-2371 권초롱(회원부장)

홍 보 부 02)788-3084 조윤희(홍보부장)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steno.or.kr입니다.

자주자주 들러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세요.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50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 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조윤희(☎ 02-788-3084)에게 연락 주세요.